



## 공교육의 회복,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교육 위기에 대한 답론은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교육자들은 공교육 위기의 원인을 내적인 요인(학교 교육 구성원들의 문제)과 외적인 요인(사회구조적 문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아젠다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 제도 및 인사 정책, 교권 보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과급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진로교육의 필요, 고교 평준화 정책 등 다양하다.

그러나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물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 사회구조적 측면의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위기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공동체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교육이 실현되지 않은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중요한 점은, 공교육 위기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교육의 문제는 사회구조와 얽혀 있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인간이다. 정부, 기업과 사회,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세계관, 철학, 가치 등 신념의 문제이다. 공교육 위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념에 기초한 각

종 가치들이 교육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 만들어낸 ‘가르침 본질’의 문제이다.

닐 포스트먼은 『교육의 종말』에서 학교 교육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문제와 철학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문제는 단순하게 제도나 기능의 수정 내지 보완에 의존하는 공학적 문제가 아니며, 그 사람에게 성장 또는 배움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되려면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가 제대로 그 의미를 찾으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믿고 따를 만한 신(god)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치나 삶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은 경험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공공의 신이 되어야 할까?

공교육의 위기는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공공의 신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가 공공의 신이 될 때 비로소 극복 가능하다. 존 볼트는 “현재의 교육위기는 과거 교육 개혁의 결과”라고 하였다. 지금 제시되는 교육개혁이 현재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요인으로 전



**소중화** 아내와 세 딸이 있으며, 평택의 이충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트리니티 부모학교 및 성경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교육과정연구소의 공동 대표를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기독교 교사 운동의 1세대로 기독교 대안학교 및 교사교육, 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좋은 교사를 꿈꾸다』(IVP)가 있다.

락할 수도 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만이 타락으로 뒤틀린 구조를 구속하며,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경적 원리에 의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만이 공교육 문제의 근본적 대책임을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공교육의 위기 극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첫째, 공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공교육의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이 아닌 신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기독교인 교사로서 나는 기독교학교 설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의 설립 이유가 단지 공교육에 대한 부정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기독교학교가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 보편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기독교학교만 존재하도록 힘써야 하는가? 그것이 가능할까? 기독교학교는 공교육을 비판하며 구석으로 내몰아야 하는가?

문제에 대한 대안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사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대안 학교, 홈스쿨링, 공교육 출신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간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을 발휘시키고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공교육이다. 공교육은 막대한 재정과 행정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독교학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독교학교들은 현재 기독교인 학생들조차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 중 기독교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가정이 몇 %나 될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독교대안학교와 기독교인의 수를 비교하면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학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교육을 부정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상과 함께 고민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다수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공교육을 받는다. 공교육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 교사들도 있고, 공교육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있다. 이들은 공교육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도록 부름 받은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독교인 공동체는 이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며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는 곧 우리 형제·자매들의 위기이다.

둘째, 공교육에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경적 원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공교육 내외적으로 기독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독교인 학자들은 교육의 제도, 사회구조의 개혁과 더불어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학교를 포함한 기업, 사회, 정부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현장감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인 학교 관리자들과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독교인 교사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학급 운영, 상담, 생활지도, 수업을 해야 한다. 기독교인 교육공동체가 공교육 안팎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공교육 회복의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 교사들이 성경적 관점(Biblical perspective)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의 우선적 기능(leading function)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인데, 지식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수업이 중요한 교육활동의 한 꼭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지식은 신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신념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며 삶의 지향점을 제공한다. 더구나 인간

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추구하는 이념(보편성, 평등성, 공공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지식, 신념, 철학으로 완성될 수 있다. 기독교인 교사는 학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사회 공동체와 창조세계에 살림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삶에 헌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수업이 가능할까? 공교육의 기독교인 교사는 다음을 이유로 기독교적 관점의 수업을 망설일 수 있다. 공교육이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물론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는 것이다. 기독교인 교사가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열심을 내고, 이슬람교와 불교인 교사는 알라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학교는 치열한 종교적 전쟁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가 반영된 기독교적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적 문제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기독교적 수업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 등의 표현 없이도 가능하다. 성경적 원리를 담아낸 수업을 위해 기독교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돕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사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기독교적 수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업의 전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유교적 개념의 '효'와 기독교의 '효'를 구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태도'에서 힌두교, 불교와 다른 기독교적 관점을 다룰 수 있다. 현대의 '관용'에 대한 개념이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돌아보고 대안으로 성경적 개념의 '관용'을 말할 수 있다.

또 수업 내용을 성경적 가치와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가치와 연결하면 학생들이 진지하게 사고하고 고민하게 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까? 이들을 위해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건강한 비전이란 무엇일까?' 등 '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thinking)를 가르칠 수 있다. 학생이 생각하도록 교사는 핵심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생각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깨달음의 기쁨이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소에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한 주제를 바라볼 때, 전체와 부분, 구조와 방향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사의 역량이다. 독서, 연수, 강의, 모임 등은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사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역량은 연구와 실천의 병행으로 결정된다. 이외에 생각하게 하는 교육으로 토론대회, 자기소개서, 면접, 동아리 활동, 탐구대회, 수행평가 등이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와 윤리적 실천을 다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구조,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내 꿈을 나누려고 한다. 기독교학교가 공교육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기독교학교들은 공공의 신조차 없는 공교육과 다르게 이미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가치가 녹아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풍성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 시설, 재정, 교육 복지, 교권, 학생 인권, 사교육 통제 등 법제화 된 교육 시행령보다 '무엇을 지향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가' 곧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가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이 되면 좋겠다. 공부를 즐거워하는 교실을 상상한다. 명문대 진학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졸업생을 배출하면 좋겠다. 학교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은 가르치고 배우길 즐거워하는 학교를 생각한다. 학부모가 세상의 학부모들과 다르다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양육 받는 것을 교육의 최고 목적으로 알면 좋겠다. 그러면 공교육은 기독교학교의 영향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지금 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